

## <끝끝내 회피해오던 내 본심을 마주하다>

20180170 서화경

사실, 나는 이과 출신이라고 하면 모를 수가 없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 재학 중이긴 하지만 과학이나 수학에 그다지 흥미가 없는 학생 중 한 명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내가 문과로 진학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글을 쓰는 것 또한 좋아했다. 그러나 점점 진학에 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한때 나에게 휴식이자 생각 정리의 수단이었던 독서는 사치가 되었으며, 소위 말하는 ‘수입’이 내 진로의 선택의 지표가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때에도 비록 일차원적인 ‘의사’라는 꿈은 지니고 있었으나,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뭐지? 내가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와 같은 의문만이 나를 휘감았다. 그러나 이미 이과로 진학한 이상 의학 계열을 제외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오직 공학 계열에 불과했고, 흥미를 떠나 수능조차 국어와 영어의 점수가 더 높을 정도로 이공계 분야에 재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나는 포스텍에 진학한 후에 더욱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렇다고 내가 엄청 재능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었다. 문제는, 그저 특출난 재능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가진 능력은 상도 아닌 중상, 혹은 중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고통의 1학년 1학기를 보낸 나는, 어느덧 포스텍에서의 두 번째 학기를 맞이했다.

물론 달라질 건 전혀 없었다. 매일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과제를 하고, 도서관을 가는, 그런 무료한 일상이 반복됐을 뿐이다. 다만, 이 중에서도 1학기와 대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교양 과목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다. 우리 대학의 경우 1학년은 기초 필수 과목을 듣느라 여유가 없어서 교양 과목을 주로 2학년, 3학년부터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나의 경우 관심이 없던 물리 2를 수강 신청하지 않고 김기홍 교수님의 ‘과학사회학’을 듣기로 결심했다. 사실 동기는 별것이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친구가 같이 위 과목을 수강해보자고 제안했던 것이었고, 대학교에 와서 교양 과목을 들어보고 싶었던 나는 큰 고민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강의를 수강하면서, 나에게 그 어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대학교 강의 중에서도 재밌는 수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전까지 내가 수강했었던 다른 과목들에 흥미가 없었던 까닭도 있겠지만, 지식의 평가만을 갈구하던 수업들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더 나아가서 교수님의 의견까지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은 내게 너무 흥미로웠다. 이후에는 이 과목이 유일하게 휴식을 취하려 가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내가 정말 공대생이 맞는 걸까?’, ‘내가 이공계 분야에서 진로를 선택해도 되는 걸까?’와 같은 고민이 여전히 내 머리 안을 가득 채웠고, 그렇게 나는 어느새 2학년으로써의 첫 학기를 맞이했다.

당연히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해봤자 처음으로 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다는 것 정도랄까? 아, 하나의 차이점이 또 있었다. 마침 과사통을 수강하고 있었던 내가 인문사회학부에 융합부전공이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초반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처음 맞이한 전공을 따라가기에 그럭저럭 버텨왔던 터라, 부전공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짝 의구심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사회과학 분야에 흥미를 지니고 있

다는 것은 점점 확실해졌고 최종적으로 과학기술학 분야로 부전공을 신청하기로 했었다. 안타깝게도, 이 결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위에서 계속 언급했었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공대에 진학한 사실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터라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고, 이에 대한 도피로 막연히 대학원을 진학하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친 데 덜친 격으로, 여름 방학에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서 수강하게 된 과목-그리스 로마신화와 동서양의 종교적 지혜-들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나는(지금 생각해보면 과학기술학과 연관되는 분야는 또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과학기술학 부전공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비록 풀리지 않는 갈증과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3학년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볼 것은, 내가 여름학기에 연구 참여를 함으로써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는 2020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약 6주간 진행되었다. 교수님과 사수분들은 전적으로 연구 참여생들을 배려해주셨으며,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나에게 부담이 된다거나 힘들만 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교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해당 분야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만약 박사과정을 수료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7년가량을 한 분야만을 바라보면서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야 하는데, 해당 분야에서 과연 이를 즐기면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고 싶었다.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채 이번 학기가 시작되었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 고민은 깊어져만 갔다. 이제 곧 4학년이다 보니 겨울 방학 때 어떤 활동을 할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연구 참여를 해야 할지 인턴을 가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아야 할지 그 어느 것에서도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렇게 융합부전공 fair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나는, 이전에 인문사회학부에서 주최했던 피자 talk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던 터라 얼추 융합 부전공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이나 다시 정리할 겸 행사에 참여해보기로 했다.

생각보다 행사는 매우 흥미로웠다. 나는 단순히 융합 부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참여했던 것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SDS 대학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얘기는, 융합 부전공을 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였다. 공과대학에 진학했지만 과학이나 수학에 그다지 흥미가 없는 학생이나를 제외하고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기도 했으며, 본인이 부전공하겠다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새삼 부럽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발언할 때, 그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 충분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이전에 감춰놓았던 과학기술학 부전공에 대한 나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진정 내가 원하는 학문 분야인가?'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졌다. 이후 교수님들의 발표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이 생겨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었던 나는 자기 전까지 이와 같은 고민을 계속해보았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고민 끝에 나는 새로운 분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점과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분야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과학기술학 부전공을 한 후,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또한 진로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므로 위 제시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fair를 통하여 갖게 된 조금 더 넓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위 분야로 진학해야겠다고 결정

하였을 때 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한 학습들이 허투루 돌아갈까 두려워하여 계속 회피해온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내 미래는 나의 선택이고 나는 미래의 내가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앞길로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나름대로 수많은 고민을 한 후 최선의 선택을 내렸을 것이다. 융합 부전공을 하겠다고 결정한 지금처럼 말이다.

이번 융합 부전공 fair는 그저 진로에 대해 불안감만 가득 지니고 있었던 내게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였으며,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른 분야-사회과학이나 인문과 같은-에 더 흥미가 있는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나에게 부여해주었다. 한마디로,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답답함에서 탈출한 듯한 느낌이랄까? 이것이 내가 왜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 이유이다. 용기를 지니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보며, 위 행사를 기획해주신 인문사회학부 교수님들과 발표를 해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